

# 현대차그룹, 새만금에 로봇 AI 수소 거점 세운다

### 정부·전북도 등과 투자협약 체결 올해부터 9조 규모 단계적 투자 미래 산업 주도권 선점 발판 마련

현대자동차그룹이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는 로봇, AI 및 에너지 솔루션 중심 미래기술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국내 혁신성장거점 설립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27일 전북 군산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산업 육성 및 AI 수소 시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전북 새만금 지역 112만4천㎡(약 3만평) 부지에 2026년부터 로봇, AI, 수소 에너지, 태양광 발전, AI 수소 시티 등 9조원 규모 투자를 실시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내 로봇, AI 산업 혁신 및 수소 생태계 대전환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활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방침이다.

이번 MOU를 통해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현대차그룹 새만금 혁신 거점 설립을 위해 인허가 등 행정 절차, 로봇, AI 및 수소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등을 지원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새만금 혁신성장거점 투자를 계기로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로봇, AI 및 에너지 솔루션 중심 미래기술 기업'으로의 비전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는 ▲AI 데이터센터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태양광 발전 ▲AI 수소 시티 등을 중심으로 한 첨단 밸류체인 구축에 초점이 맞춰진다.

우선 현대차그룹은 미래 기술 두뇌 고도화를 통한 자율주행 및 로봇 등 피지컬 AI 구현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AI 데이터센터(5조8천억원)를 건립한다.

AI 데이터센터는 단계적으로 GPU 5만장급 초대형 연산 능력을 갖추고 SDV(Software Defined Vehicle) 개발, 스마트 팩토리 구현 등에 필요한 막대한 데이터를 처리 및 저장한다.

현대차그룹은 피지컬 AI 구현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제조, 물류, 판매 등 모든 밸류체인에 걸쳐 확보 가능한 기업으로서, 현장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하고 이를 다시 제품에 적용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기술 및 제품 개발의 속도와 안정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고객 맞춤형 로보틱스 기술로 확대 구현할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4천억원)도 조성한다.

클러스터는 로봇 완성품 제조 및 파운드리 공장과 부품 단지로 구성된다. 연 3만 대 규모로 들어서는 로봇 제조 공장은 현대차그룹의 제조 솔루션 및 AGV(무인운반차)·AMR(자율주행 물류 로봇) 기반의 스마트 물류를 도입하며, 제조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업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미래의 청정 에너지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 내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청정 수소를 생산하는 ▲200MW 규모 수전해 플랜트(1조원)도 건설한다.

수소 충전소 등 플랜트 인근 공급 인프라 구축을 병행하고, 생산된 청정 수소는 트램과 버스,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DRT) 등 다양한 모빌리티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활용된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청정 에너지 자립 기반을 견고히 다지고, 수소 경제 조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국내에 총 1GW 규모의 수전해 플랜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새만금의 풍부한 일조량을 활용해 필요 분야에 원활한 전기를 공급하는 ▲GW급 태양광 발전(1조3천억원) 사업도 진행한다.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AI와 로봇, 수소 에너지 기술이 유기적으로 융합돼 완성형 산업 생태계를 이루는 ▲AI 수소 시티(4천억원)도 조성된다.

AI 수소 시티는 '디자인(D.E.S.I.G.N.)'이라는 키워드로 설명된다. 전력과 데이터 및 로봇 수요 창출(Demand),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전문성과 기술(Experience), 그룹 역량이 집결된 로봇 및 수소에너지 생태계(Supply Chain), 그리고 대한민국의 도로, 철도, 항만, 정보통신기술(Infrastructure), 국가 성장 핵심 전략 및 정책 지원(Government), 민관 협력 및 해외 진출 네트워크(Network) 등을 통해 AI 수소 시티를 디자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지난해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발표한 12조2천억원 규모 국내 중장기 투자 계획 가운데 핵심 프로젝트이다.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제도 및 인프라를 갖춘 새만금에 신사업 혁신성장거점을 구축함으로써 로봇, AI, 수소 에너지 기술 등 첨단 밸류체인 경쟁력을 고도화하고, 인간 중심 피지컬 AI 선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는 로봇, AI 기술 혁신 및 수소 에너지 생태계 대전환을 이끌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 발전 촉진 등 즉각적이며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투자가 유발하는 경제효과는 한국은행 등 산업 연관표 기준 약 16조원에 이르며, 직간접 7만 1천명 수준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임채만 기자



## 현대차, 이달부터 다양한 전기차 특별 프로모션

### 아이오닉 9 '올해의 차 3관왕' 기념 각종 할인 혜택

현대자동차가 3월부터 아이오닉 9의 '2026 올해의 차' 트리플 크라운 달성을 기념해 다양한 EV 특별 프로모션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현대차의 전용 전기차 플래그십 모델인 아이오닉 9은 2월10일 '중앙일보 올해의 차' 수상을 시작으로, 같은 달 18일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 올해의 차'와 28일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올해의 차'까지 수상하며 2026년 국내 3대 올해의 차를 모두 석권했다.

아이오닉 9의 트리플 크라운 달성은 현대차의 전기차 기술력과 상품성이 국내 시장의 모든 브랜드를 통틀어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로, 현대차는 이번 수상을 기념해 EV 차종 대상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현대차는 3월 계약 후 4월 내 출고 고객을 대

상으로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아이오닉 9 ▲코나 일렉트릭 등 현대 승용 전기차 구매 고객에게 10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포터 일렉트릭 ▲ST1(사시킵 제외) 등 소형화물 전기차에는 5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3월1일부터 15일까지 매일 최대 1천40만 원 상당의 차량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고객 참여형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현대차 공식 홈페이지(<https://www.hyundai.com>)의 톨렛 이벤트를 통해 참가할 수 있으며, ▲1등 300만원 할인쿠폰(매일 1명) ▲2등 100만원 할인쿠폰(매일 5명) ▲3등 10만원 할인쿠폰(매일 24명)을 제공한다. (버스, 중대형 트럭, 영업용, 캐스퍼 차종은 할인쿠폰 적용 제외)

'현대 EV 부담 Down 프로모션'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차량 관리를 지원하는 '스트레스 프리(STRESS-FREE) 패키지'를 통해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 EV 부담 Down 프로모션은 36개월 차량 반납 유예형 할부 상품으로 3월 기준 모빌리티 할부 28% 금리가 적용된다.

'현대 EV 부담 Down 프로모션'으로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일렉트릭을 3월 중 출고 받는 고객은 ▲바디케어 서비스(차체 수리비/부품 교체비 120만원 한도, 부위별 1회씩 총 3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총 3회, 회당 50만원 한도)을 3년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기존 EV 금융 고객을 위한 '재구매 고객 전용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임채만 기자

## 기아 조지아, 누적 생산 500만대...텔루라이드 하이브리드 양산

기아조지아 법인은 지난달 24일(현지 시간) 기준 누적 생산 500만대를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동시에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 공장에서 2027년형 '올 뉴 텔루라이드' 생산을 시작하며 하이브리드 모델 생산을 본격화했다.

누적 생산 500만 번째 기념 차량은 올 뉴 텔루라이드 하이브리드 모델로 조지아주에서 생산된 최초의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기념 행사에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를 비롯해 지역 정부 관계자, 커뮤니티 리더, 임직원들이 참석해 기아 조지아의 성과를 축하했다.

2009년 생산을 시작한 기아 조지아 법인은 지역 대표 고용처로 성장했으며, 미국 남동부 자

동차 산업의 핵심 생산 기지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웨스트포인트 공장에서 생산되는 텔루라이드는 북미 소비자 요구와 미국의 도로 환경을 기반으로 개발된 전략 모델로, 미국 시장에서 기아의 성장을 상징하는 모델이다.

1세대 텔루라이드는 2020년 '북미 올해의 차', '세계 올해의 차', '모터트렌드 올해의 SUV' 등 주요 상을 석권하며 북미 시장에서 브랜드 위상을 크게 높였다.

윤승규 기아 북미권역본부장 및 미국판매법인장 사장은 "기아 조지아는 텔루라이드를 생산하는 전 세계 유일의 공장으로서, 이번 생산 개시는 단순한 신차 출고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

다"며 "500만대 생산 달성과 조지아주 최초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을 통해 기아의 기술적 진전과 미래 전략 방향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텔루라이드는 2019년 출시 이후 조지아에서만 생산되며 기아 라인업 내 가장 성공적인 모델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며 "이번 성과는 지역사회, 그리고 주정부 간 긴밀한 파트너십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스튜어트 카운테스 기아 조지아 생산법인장은 "500만대 생산은 임직원의 헌신과 팀워크의 결과"라며 "내년 기아, 전지구에 이어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생산하게 되며 공장의 유연성과 기술력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회호  
220603-중-139779

#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